

'손흥민 멀티골' 콜린스만 데뷔전, 무승부

손흥민,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서 2골 터트려
2-0으로 앞섰으나 수비 흐트러져 내리 2실점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선임 감독의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활약했지만 승리를 맛보진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24일 저녁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을 지키지 못하고 2-2로 비겼다.

이날 경기는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2년 만의 16강에 오른 뒤, 처음 열리는 A매치로 새 사령탑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였다.

세계적인 공격수 출신 클린스만 감독은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아 2023년 북중미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 계획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토트넘 후배이기도 한 손흥민은 감독의 부임 경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이목집을 돋보였다.

손흥민의 A매치 36·37호골이다. 이로써 역대 한국 선수 A매치 최다골 부문에서 박이천(36골)을 넘어 단독 3위에 올라섰다.

차범근 전 감독이 58골로 1위, 황선홍 23골 이하 대표팀 감독이 50골로 2위다.

특히 손흥민은 콜롬비아전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유독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2017년 11월 수원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2-1 승리를 이끌었고, 2019년 3월 서울 대결에서도 한 골을 기록, 2-1 승리에 기여했다. 3경기에서 무려 5골을 퍼부었다.

카타르월드컵 주축 선수들을 대거 소집한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호 시절과 비교해 선발에 큰 변화를 주진 않았다.

최진방에 조규성(전북)을 중심으로

공격 2선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재성(미인츠)을 배치했다.

황희찬(울버햄튼)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독일파 정우영이 선발 기회를 잡았다. 황인범(울림피아코스)과 정우영(알사드)이 중원에 자리했다.

포백 수비라인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에서 뛰는 '백' 김민재와 함께 김영권, 김태환(이상 울산), 김진수(전북)가 호흡을 맞췄다. 그러나 김진수는 전반 21분 무릎 허리 부위 부상을 입어 이기제(수원)와 교체됐다.

골문은 김승규(알사드)가 지켰다. 한국은 초반부터 과감한 진전 패스와 쇄도로 콜롬비아의 수비를 공략했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연이어 나왔지만 한층 공격적인 모습이었다.

첫 골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흥민이 전반 10분 콜롬비아의 실수로 페널티박스 외곽에서 공을 잡았다.

손흥민이 전반 10분 콜롬비아의 실수로 페널티박스 외곽에서 공을 잡았다. 골키퍼 바르가스가 골문을 비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왼발로 침착하게 감아서 때려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드리블 돌파와 빠른 패스 전개 슈팅까지 콜롬비아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전반 27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선 예리한 오른발슛이 인상적이었다.

또 전반 38분에는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반칙으로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지만 주심이 페널티박스 밖에서 반칙이 이뤄졌다고 다시 판단, 프리킥으로 정정됐다. 이기제가 왼발로 정확하게 골문 왼쪽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손흥민은 1-0으로 끝날 것 같았던 전반 추가시간 프리킥 기회에서 오른발로 절묘하게 때려 콜롬비아의 골문을 한 차례 더 흔들었다. 전반을 2-0으로



지난 24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경기, 대한민국 손흥민이 두번째 골을 성공 시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앞섰다. 그러나 전반에 무실점으로 잘 버티던 수비가 후반 초반 무너졌다.

콜롬비아는 황인범의 팀 동료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후반 2분 왼발슛으로 만회골을 터뜨렸고, 2분 만에 카리스

말이 등장골을 넣었다.

전반에 2-0으로 주도권을 잡아 손쉬운 운영을 기대했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아쉬운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15분 오현규(셀틱), 이강인(마요르카)을 동시에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이어 후반 23분에는 손준호(산둥 타이산)와 나상호(서울)가 나란히 들어갔다.

수비에선 세트피스 대인방어마저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 24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보레의 헤더가 한국의 골대를 때려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전담 공격수를 놓친 아찔한 순간이다.

후반은 일진일퇴의 팽팽한 흐름이었다.

경기 막판 오현규가 기회를 잡았다. 후반 43분 페널티박스에서 슈팅 기회를 잡았고, 왼발로 강하게 때렸으나 수비수 몸이 굴절되면서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오현규는 카타르월드컵 최종엔트리(26명)에 들지 못했지만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손흥민의 부상 회복 속도를 고려해 대체 자원으로 동행했던 신에 공격수다. 월드컵 이후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으로 이적했다. 이날 경기가 두 번째 A매치 출전이었다.

결국 양 팀은 후반 추가시간까지 결승골을 기록하지 못하며 균형을 이룬 채 경기를 마쳤다.

한국의 콜롬비아전 전적은 4승3무1패가 됐다.

한편, 콜롬비아 대표팀의 지각으로 경기 취소가 예정보다 2분 늦은 오후 8시21분에 이뤄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콜롬비아 대표팀이 숙소에서 경기장으로 늦게 출발하면서 교통 체증이 겹치면서 경기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28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상대였던 우루과이와 대결한다.

/뉴스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전영오, 공희용, 소속팀 감독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피겨 싱글 간판 이해인, 세계선수권 銀

김연아 이후 10년만에
한국, 내년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출전권 3장 확보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는 이해인.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이해인(18·세화여고)이 한국 선수로는 '피겨여왕' 김연아(은퇴) 이후 10년 만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수확했다.

이해인은 지난 24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2023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5.53점, 예술점수(PCS) 71.79점으로 합계 147.32점을 받았다.

소프트프로그램에서 73.62점을 받아 2위에 오른 이해인은 최종 총점 220.94점을 획득,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224.61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사카모토는 지난해 이어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루나 헨드릭스(벨기에)가 210.42점으로 동메달을 땄다.

이해인이 이날 받은 220.94점은 지난해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딸 때 기록한 종전 ISU 공인 개인 최고점(213.52점)을 무려 16.42점 끌어올린 것이다. 이번 대회 소프트프로그램(총점 70.08점)과 프리스케이팅(총점 143.55점) 모두 개인 최고 점이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한 것은 2013년 김연아 이후 10년 만이다.

이전까지 피겨 세계선수권대회에

서 메달을 목에 건 한국 선수는 김연아가 유일했다. 김연아는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통산 6개(중 2개·동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2007년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따내 한국 피겨스케이팅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이라는 새 역사를 써낸 김연아는 2008년 동

메달을 목에 걸었고, 2009년에는 사상 첫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2010년과 2011년 은메달을 추가한 김연아는 201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통산 2번째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김연아가 2013년 금메달을 딴 이후로는 유영(수리고)이 지난해 여자 싱글 5위에 오른 것이 한국 선수의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이었다.

하지만 이해인이 10년 만에 메달 명맥을 이었다. /뉴스

지난달 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210.84점을 받아 한국 선수로는 2009년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건 이해인은 다시 한 번 패거리를 이끌었다.

합계 출전한 김재연(수리고)은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76.78점, PCS 62.67점으로 139.45점을 얻었다.

소프트프로그램 64.06점과 합계 최종 총점 203.51점을 기록한 김재연은 6위를 차지, 생애 첫 시니어 세계선수권에서 톱10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소프트프로그램에서 12위였던 김재연은 프리스케이팅에서 '블링' 연기를 펼쳐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다.

한국은 이해인과 김재연의 활약 덕에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출전권을 3장이나 확보했다. /뉴스



순창군이 소프트테니스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소프트테니스 대회 유치 순창군, 지역경제 이끈다

회장기 전국대회 내달 2일까지

소프트테니스의 중심 순창군이 전국 규모의 각종 스포츠대회를 잇따라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소프트테니스 꿈나무 선수단 유치를 시작으로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 등 각종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해 소프트테니스 매카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순창군과 전북도가 후원하는 제44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는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과 순창제일고 소프트테니스장에서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단식, 복식)으로 진행되며 초·중·고·대학·실업팀 등 전국의 소프트테니스 전문 선수들 1,300여명이 참여해 8일간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11번째 개최되고 있는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는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대규모 대회 중 하나로 대회기간 중 순창군 관내 읍·면 단위를 포함한 숙박업소, 음식점, 치킨집, 피자집, 빵집, 커피숍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매가 예상돼 웃음꽃이 활짝 필 전망이다.

특히 순창군은 대회를 위해 순창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안전 관리와 편의제공은 물론 순창의 맛과 멋을 알려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수는 "매년 전국 소프트테니스 개최지로 순창군을 선택해주신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에 감사드립니다"면서 "대회 기간 중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소프트테니스 스포츠 대회를 매년 10회 이상 열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체육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런던올림픽 양궁 2관왕 기보배, 국가대표 복귀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양궁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기보배(35·광주시청)가 6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기보배는 지난 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2023년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리커브 여자부에서 종합 배점 37.5점, 평균 기록 28.17점으로 종합순위 8위에 오르며 국가대표 8명 중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다.

6년만의 국가대표 복귀다.

기보배는 런던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2016 리우 데자네이루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세계적인 궁수다. 2017년 결혼 후 출산도 했지만 여전히 활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한양궁협회는 작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선발전을 진행해 남녀 각 8명의 태극 궁수를 선발했다.

여자부에선 강재영(현대모비스)이 종합배점 61점, 평균 기록 28.34점으로 2차 선발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임시현(한국체대)과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이 2위와 3위로 선발전을 통과했다.

남자부에선 이우석(코오롱)이 종합 배점 64.5점, 평균 기록 28.8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재덕(에천군청)과 서민기(계명대)가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김우진(청주시청)과 오진형(현대제철)이 각각 4위, 7위로 통과했다. 김재덕, 김우진, 오진형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삼총사다.

또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열리는 컴퍼운드에선 김종호(현대제철)와 오유현(전북도청)이 각각 배점합계 67점, 70점으로 남녀부 1위를 기록했다.

남자부에선 안재원(삼우)이 2위, 최용희(현대제철)가 3위를 기록했고, 소채원(조수아)·이상 현대모비스가 여자부 2위, 3위로 통과했다.

남녀 각 8명을 선발한 리커브와 컴퍼운드 대표팀은 오는 28일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해 훈련에 돌입한다. /뉴스